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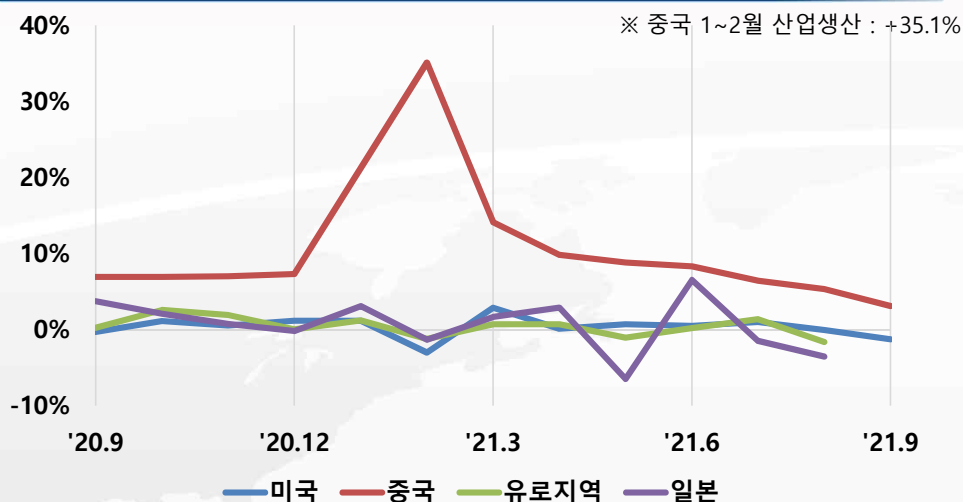
2021.10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원자재 가격 상승,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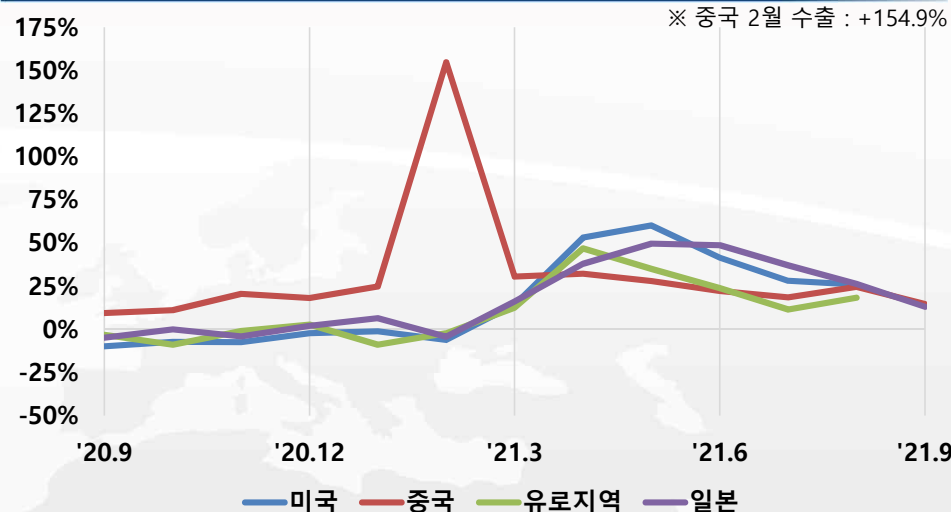
- (미국) 델타변이 확산, 공급망 차질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 둔화
 - 9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Δ 1.29%)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, 배송 지연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
- (중국) 전력난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산업생산 둔화
 - 9월 산업생산 증가율(전년동월 대비 +3.1%)은 3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, 소매 판매(전년동월 대비 +4.4%) 증가율은 연중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
- (유로존)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제조업 생산 부진, 소매판매는 물가상승 불구 소폭 회복
 - 8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Δ 1.6%)은 큰 폭 감소, 소매 판매(전월 대비 +0.3%)는 소폭 반등,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.0% 상승
- (일본) 반도체 수급 문제 지속에 따른 자동차 생산 지연 등으로 산업 생산 감소세 지속
 - 8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Δ 3.6%) 2개월 연속 감소, 소매판매(전월 대비 Δ 4.1%)도 긴급사태 연장 등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 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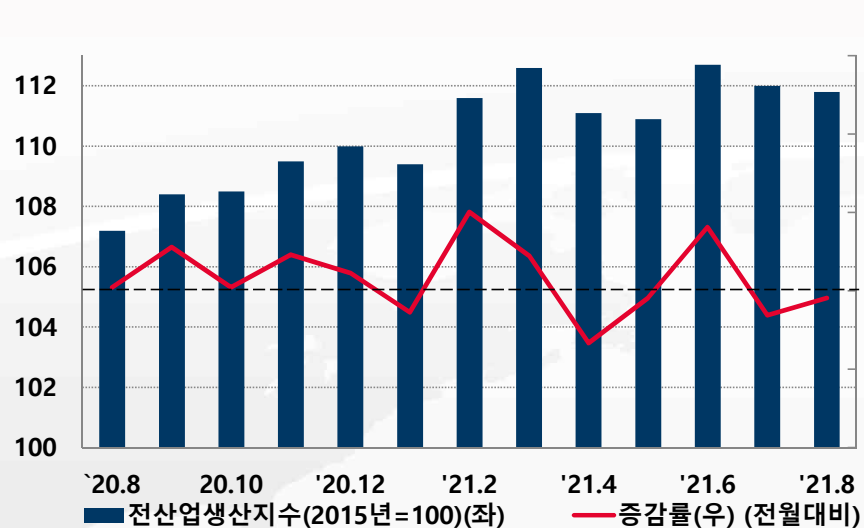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회복세는 정체되는 양상

- (생산) 전산업생산은 공공행정 및 건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위축되며 전월대비 0.2% 감소
 - (광공업 : △ 0.7%) : 통신방송장비(+16.6%), 반도체(+3.5%), 석유정제(+3.4%), 등에서 증가, 전기장비(△ 5.1%) 등에서 감소
 - (서비스업 : △ 0.6%) : 숙박음식점(△ 5.0%) 도소매업(△ 0.9%) 감소, 부동산(+3.0%), 금융보험(+1.0%), 증가
- (경기) 8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1.3p)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기회보 양상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월수출액 및 일평균 수출액(수출액/조업일수) 역대 1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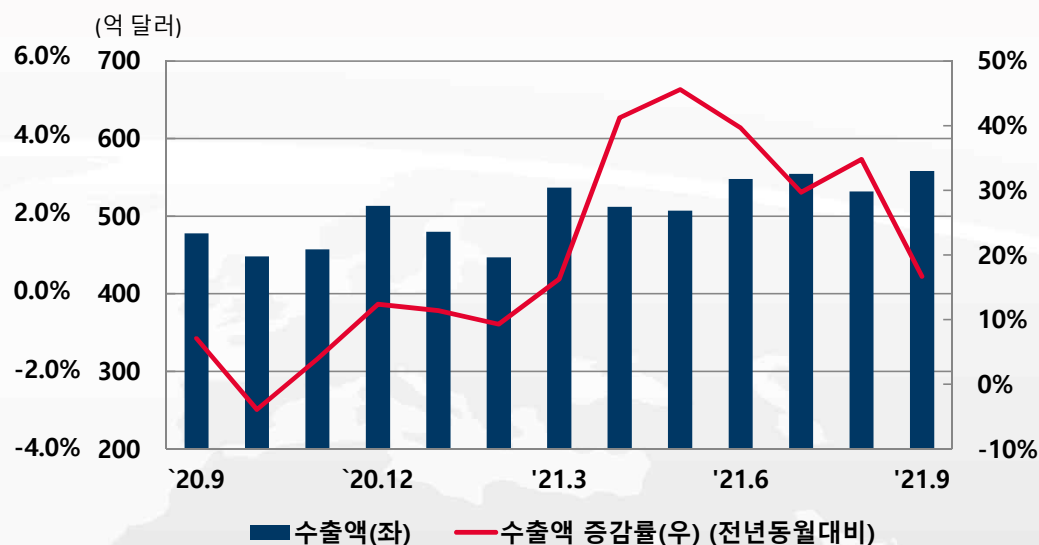
- 9월 총수출은 558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16.7%), 일평균 수출액 26.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+27.9%) 기록
 - 中(+17.3%) , EU(+15.6%), 美(+14.5%), 등 주요국 뿐만 아니라 CIS(+37.3%), 중남미(+26.6%), 아세안(+16.8%) 등도 선전
 - 반도체(+28.2%)는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, 석유제품(+78.7%), 석유화학(+51.9%)은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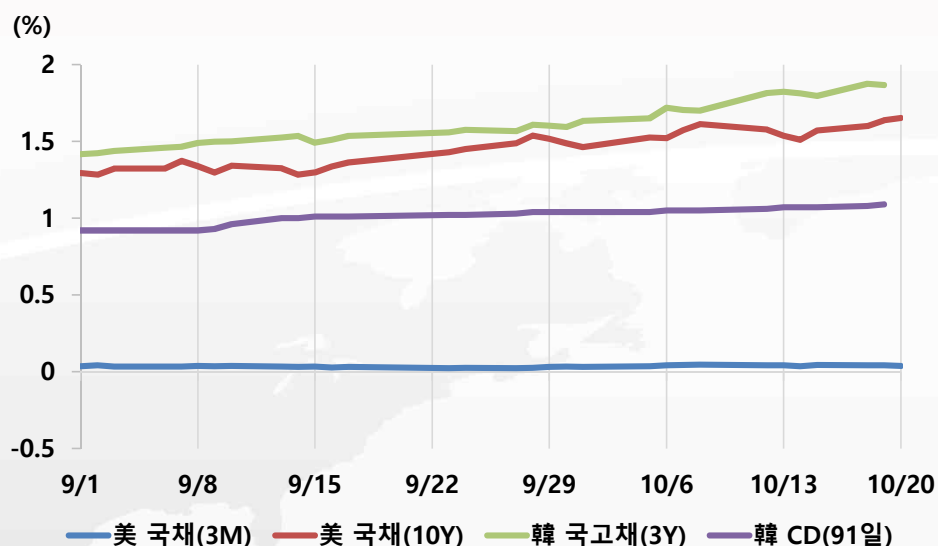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최근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유동성 회수 가능성 증대로 금리 상승세 지속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미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조기 시행 가능성 등으로 1.65%대로 상승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채 금리 상승, 부동산 시장 과열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.86%대로 상승

■ 환율 : 미달러화,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고조 등으로 강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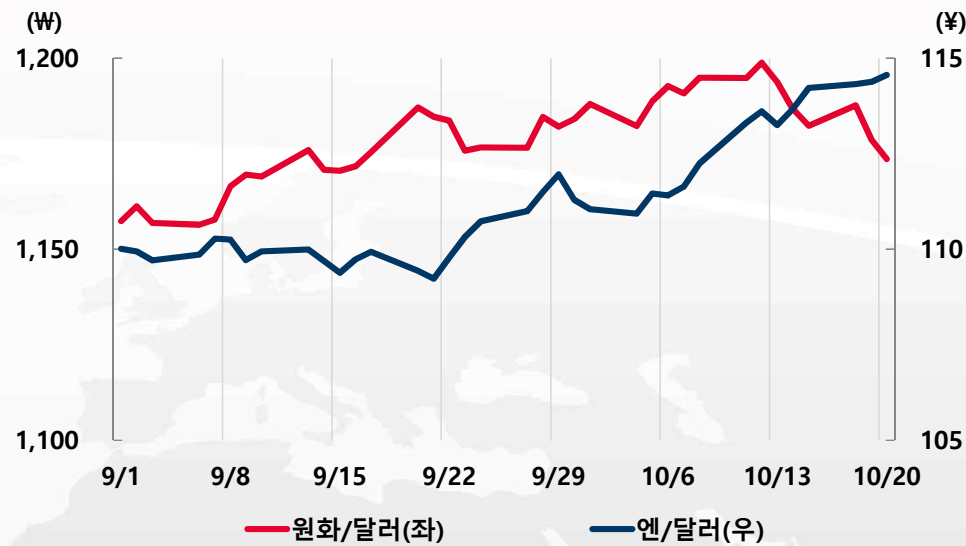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하반기 경기전망 불투명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미달러화의 글로벌 강세 등으로 1,200원/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, 위안화 강세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1,175원/달러 수준으로 급락
- (엔/달러 환율)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 속에 일본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115엔/달러 수준으로 급등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원유 가격은 공급차질 우려로 급등세 지속,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 후 10월 들어 하락 전환

- (원유) 미국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생산차질, OPEC+의 증산 속도(매달 40만 b/d) 유지 결정,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 비축유 방출무산 등에 따른 타이트한 공급으로 유가상승세 지속, 10월 중순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 기록
 - 10월15일 주간 미국 원유재고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4주만에 감소(전주대비 0.1% ↓)하며 10월 중순 유가상승 견인, 10월 중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를 기록하며, 2018년 10월초 이후 최고치 기록(10.18일, 두바이유 \$83.89/bbl)
- (천연가스) 미국 멕시코만 천연가스 생산차질로 8월말 이후 가격이 급등하여, 10월초 mmBtu당 6달러대 돌파, 이후 높은 가스 가격으로 인한 수요 위축 우려로 가격 하락세로 전환, 10월 중순 5달러 초반대 기록
 -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여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(10월 5일, NYMEX \$6.31/mmBtu)를 기록한 이후 천연가스 수요위축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, 10월 중순 5달러 초반대 기록

국제유가 추이

(\$/bbl)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(\$/mmBtu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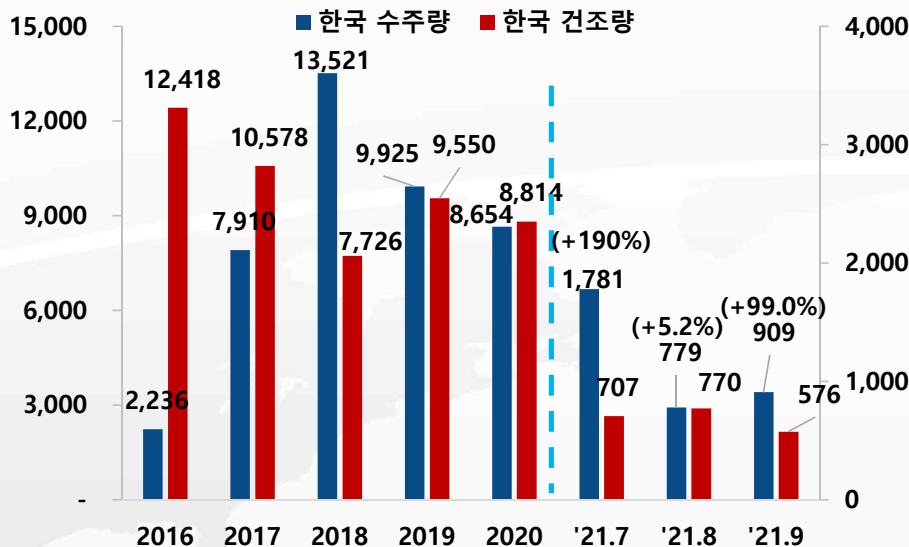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9월 수주는 상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 유지

- 9월 시황은 세계 발주량은 전월 부진에서 회복되었으나, 한국 수주는 다소 부진
 - 9월 세계발주량은 전년동월 대비 228.3% 증가한 328만CGT, 9월 누적치는 전년동기 대비 184.0% 증가한 3,754만CGT
 - 9월 한국 수주량은 91만CGT(전년동월 대비 +99.0%), 누적치는 1,457만CGT(전년동기 대비 +360.6%)
 - 9월 수주액은 23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157.6%), 누적 수주액은 366.1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404.6%)
 - 9월 한국은 LNG선 위주로 수주를 이어 나갔으나, 금년 중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중형 선형에 집중됨에 따라 이를 중국이 대거 수주하면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크게 축소됨
- 9월 선박 수출은 점차 단기적 일감 부족이 현실화되며 감소함
 - 9월 수출액은 10.4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-40.5%), 누적 수출액은 164.8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13.9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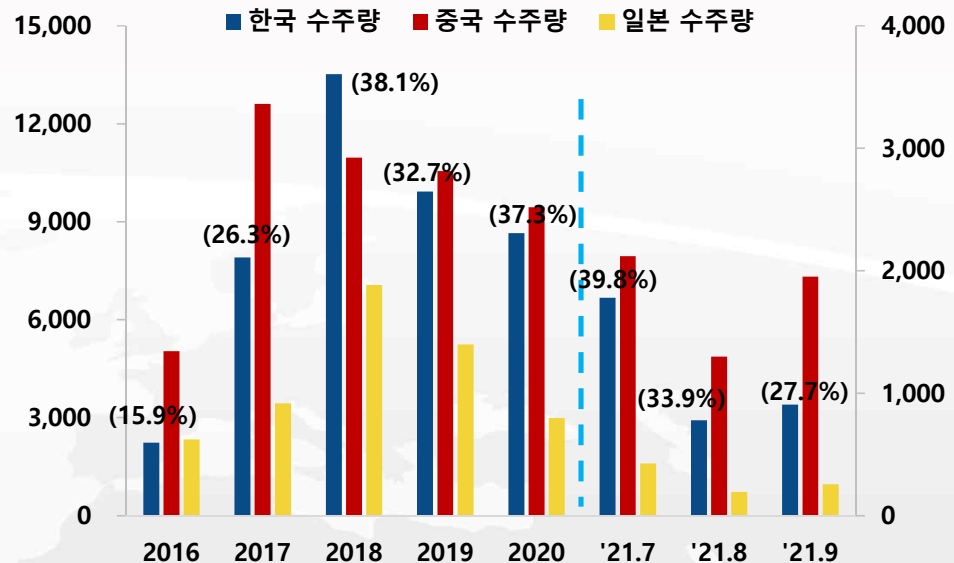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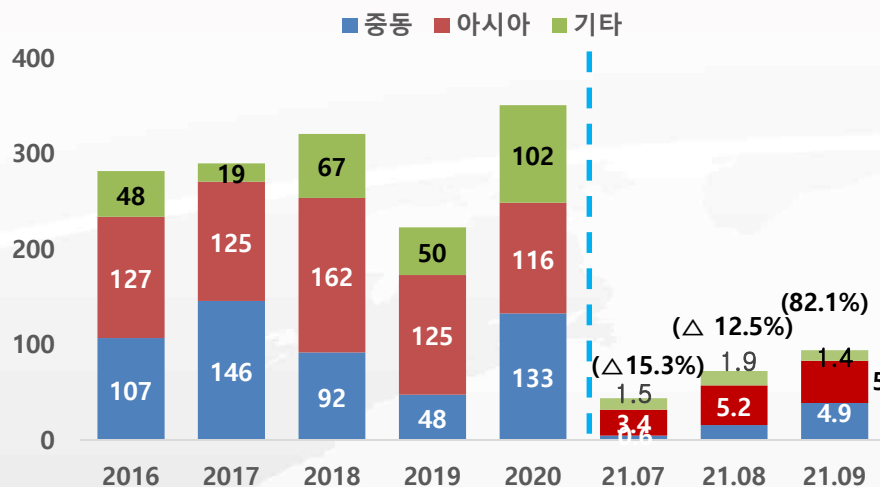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

■ 9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82.1% 증가한 11.8억 달러

- 9월 해외건설 수주는 아람코사가 발주한 타나집 민자발전사업을 삼성물산이 수주(7.1억 달러)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82.1% 증가
- (지역별) 중동 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31.4% 증가한 4.9억 달러, 아시아는 5.5억으로 전년동월 대비 152% 증가
- 9월까지 지역별 누적 수주액은 중동(48.8억 달러, △42.4%), 아시아(78.7억 달러, △0.7%), 북미(15.4억 달러, +196%), 유럽(21.8억달러, +242%)
- (공종별) 플랜트 5.6억 달러(전년동월대비 +133%), 토목 3.5억 달러(+66.7%), 건축 2.2억 달러(+262%) 기록
- 4분기에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재개되면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도 청신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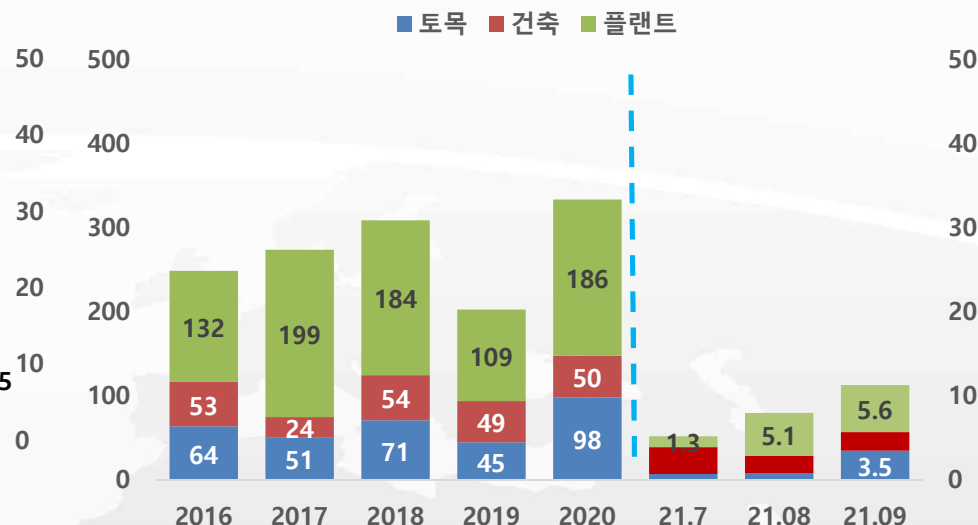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9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35.6억 달러, 18.5억 달러 기록

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.1% 감소했으며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46.8% 증가

- 반도체 수급난과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생산은 33% 감소, 수출대수는 20.7% 감소하였으나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판매 확대로 수출액 감소폭은 비교적 작은 △6.1% 기록
-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6.8% 증가한 10.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달성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9.4% 차지

*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비중: ('20년9월) 14.4% → ('21년 7월) 22.2% → ('21년 8월) 27.5% → ('21년 9월) 29.4%

*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수출 비중(대수 기준): 전기차(39.9%), 하이브리드(48.6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11.4%), 수소차(0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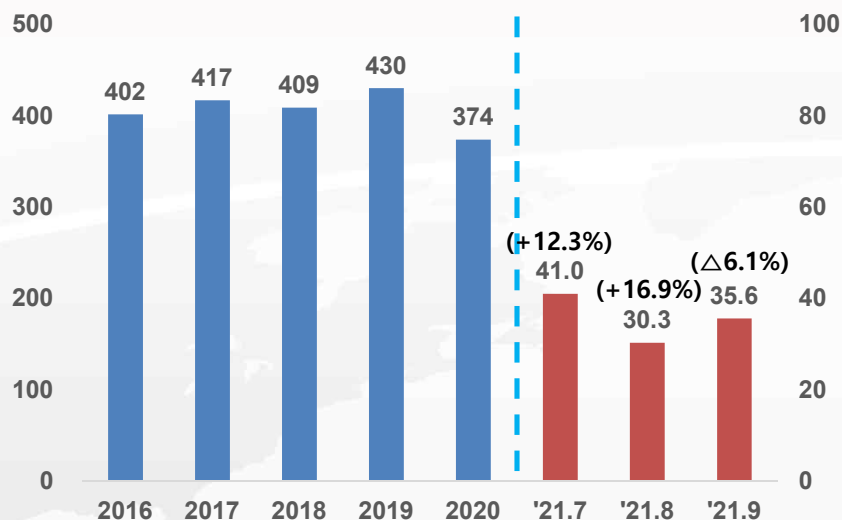
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.2% 감소한 18.5억 달러 기록

-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액 감소

* 대륙별로 북미(30.2%), 유럽(29.1%), 아시아(25.6%)의 판매 비중이 높고, 전년동월 대비 각각 8.7%, 3.4%, 3.7% 감소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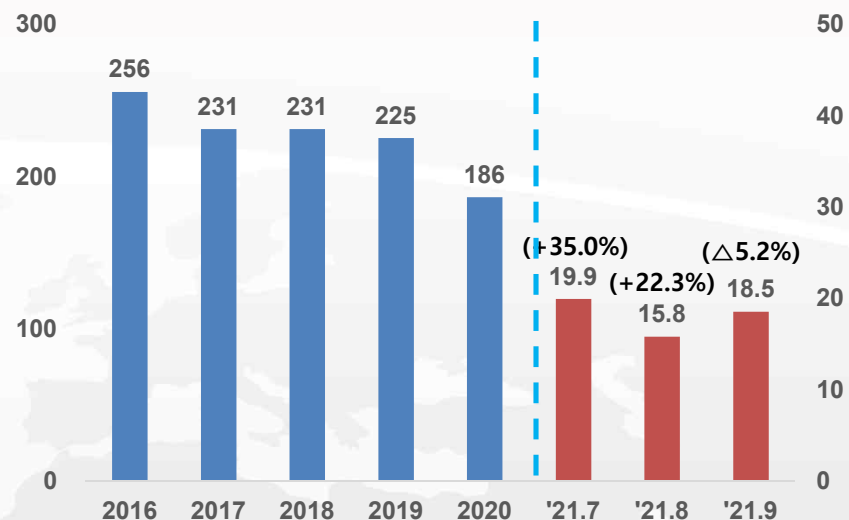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■ 9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27.4%, 15.7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7.4% 증가한 122.3억 달러로 15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모바일 및 서버 수요,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8.6% 증가한 79.5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7~9)3.13 → (10~12)2.85 → ('21.1~2)3.0 → (4~6)3.8 → (7~9)4.1 (D램익스체인지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1.7% 증가한 37.5억 달러 기록

* 국내 파운드리: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: ('20.8)81.3 → ('21.1)76.1 → (3)78.1 → (5)83.6 → (7)84.0 → (8)84.4 → (9)85.0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.7% 증가한 24.4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3.1% 증가한 16.2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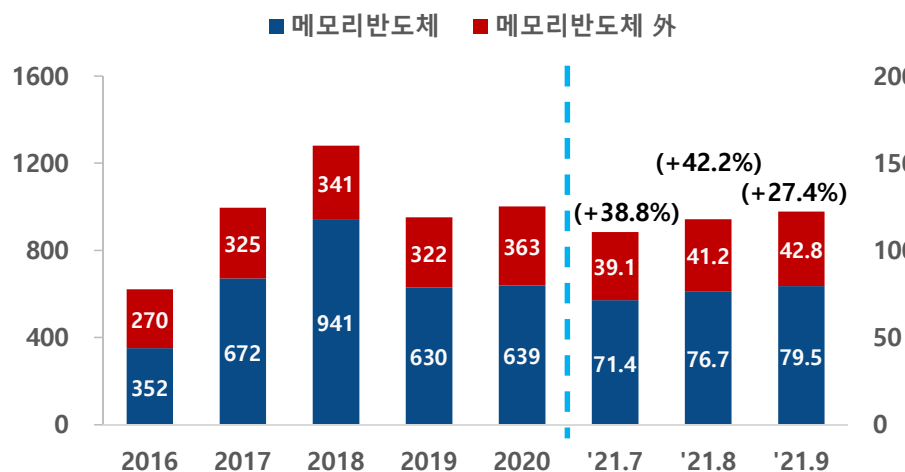
* OLED 수출가격지수(2017.12=100): ('20.8)66.7 → ('21.1)61.7 → (3)54.6 → (5)51.2 → (7)52.2 → (8)51.8 → (9)52.2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 TV 패널 가격 하락,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.3% 감소한 4.9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

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디스플레이 수출액

(억 달러)

